경제혁신 희망의 새시대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http://www.motie.go.kr

배포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6. 5. 13.(금)	담당부서	무역진흥과, 동북아통상과
담당과장	조수정 과장 (044-203-5690) 이경호 과장 (044-203-4030)	담 당 자	박근형 사무관(044-203-5692) 송영진 사무관(044-203-4031)

선양시안 등 중국 2, 3선 도시를 대중 수출의 새로운 돌파구로

- **12-14일간 선양·시안 한류상품박람회로 소비재, 문화컨텐츠 진출 확대**
- **실크로드박람회에서 주빈국으로 참여,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비전 공유, 상호투자 확대, 제3국 공동진출 추진**
- **섬서성과 경제협력협의회 개최, 요녕성과도 협력채널 신설 협의**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선양, 시안을 잇달아 방문, 선양 한류상품박람회(12일), 시안 실크로드 박람회(13일)에 참석하여 **중국 동부·서부의 새로운 내륙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였음.

○ 또한, **제2회 한-섬서성 경제협력협의회** 개최를 통해 중국 서부대개발의 핵심거점이자 전략적 교두보인 섬서성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였음.

○ 주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다수의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고위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중 FTA 시대 양국간 경제 협력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중국에 투자한 우리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요청함.

* 중앙정부 : 왕용(王勇) 국무위원, 천웬(陳元)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
* 지방정부 : 리시(李希) 요녕성 당서기, 러우친젠(婁勤儉) 섬서성 당서기, 후허핑(胡和平) 섬서성장 등

< 선양 한류상품박람회 개최 및 시안 실크로드 박람회 참석 >

□ **(선양 한류상품박람회)** 12일 오후 선양공업전람관에서 개막한 **'선양 한류상품박람회'**에는 개막 첫날부터 **400여명의 바이어**를 비롯한 **3천여명의 참관객이 전시장을 방문**하는 등 현지의 뜨거운 한류 열기를 보여줌

○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하지원, 위너, 레드벨벳, 찬열(엑소) 등 정상급 한류스타들이 참석**하여 우리 기업들 제품 홍보에 기여를 하였음

○ 이번 박람회에 참여한 116개 우리기업들은 12일 하루동안 **1,245건, 78백만불의 1:1 수출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총 **15백만불** 규모의 MOU도 **14건** 체결함

- **코스모대우**의 경우 중국판 '정글의 법칙'에 PPL 상품으로 동장한 국내 중소기업 제품인 **'마다카스카르 진흙 원료 화장품'**을 중국 ALOG그룹과 1천만불 규모의 수출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는 중소기업 제품 수출을 위해 **종합상사와 중소기업이 협력**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임

□ **(시안 실크로드 박람회)** 아울러, 주 장관은 13일 **"실크로드 박람회"**에 **주빈국 대표**로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의 **일대일로와** 우리나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간의 연계 비전**을 참가국들과 **공유**하고,

* 실크로드 박람회 : 중국이 매년 개최하는 서북지역 최대규모의 국가급 행사로 금번 박람회에는 카자흐스탄과 함께 주빈국으로 참여했으며, 총 48개국 10만여명의 관람객이 참석

○ 실크로드 국가들간 전자적 통관 무역 시스템 도입 등 교역·투자 활성화, 교통·물류·에너지·디지털 분야의 연결성 제고, 역내 경제통합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였음 (기조연설 별첨)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5-13 14:17:35

○ 주 장관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구상을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하여, 실크로드 국가간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서 새로운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자"고 언급함.

○ 실크로드 박람회의 한국관에는 이마트(유통), 휴롬(생활용품), 혜명(패션), 웅진식품·농협(식품), 동아에스티(의약품) 등 100개사가 참여, 소비재 기업관, 한국식품관, K-HIT관, 한류융합상품관 등을 구성, 현지의 높은 호응을 얻었음.

< 한-섬서성 경제협력협의회 개최 >

□ 산업부는 섬서성 정부와 **제2회 한-섬서성 경제협력협의회***를 개최하여 한중 FTA를 활용한 교역·투자 확대, 환경, 문화컨텐츠, 에너지 등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한-섬서성 경제협력 양해각서('12)에 따라 운영중인 양자간 장관급(韓 산업부 장관 - 中 섬서성장) 협의회

*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의 대중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섬서성, 광동성, 사천성, 산동성, 강소성 5개 지방정부와 고위급 협의채널 운영중

○ 이 자리에서 **SM엔터테인먼트**는 중국 **화산여유그룹**과 **현지 문화시설 및 홀로그램 상영 극장 설립에 대한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양국 유관기관간에 **바이오와 ICT분야**의 **기술사업화 협력을 위한 산학연 다자간 업무협정(MOU)** 등이 체결됨

* 바이오융합 분야 기술사업화 추진을 위한 MOU :
(韓) 전자부품연구원, 미라클스코프 - (中) 시안자오퉁대학, 나노과기유한공사

** ICT분야 기술사업화 추진을 위한 MOU :
(韓) 전자부품연구원, 텔리아넷 - (中) 시안전자과기대학, 위룽컴퓨터통신과기유한공사

< 중앙정부 인사 및 주요 당서기/성장 면담 >

□ **주 장관**은 12일 동북3성의 중심지인 선양을 방문해 **리시**(李希) **요녕성 당서기**와 면담을 갖고, 양측간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산업부-요녕성 간 협력채널*** **신설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적절한 시기에 한국에서 다시 만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특히, 요녕성은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교차점**으로서 향후 상호간 투자 확대 및 제3국 공동진출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협력이 기대됨

○ 또한, 요녕성의 노후산업시설 개발, 신에너지 분야 육성 등에 대하여는 **과거 한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경험이 많은 기여**를 할 것임

□ 주 장관은 또한 13일 실크로드 박람회 참석차 시안 방문중인 **왕용(王勇) 국무위원, 천웬(陈元)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과 면담, 한중 경제통상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try of Trade,
try and Energy

○ 양측은 **한중 FTA 효과 극대화**를 비롯한 한중 경제협력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우리측은 중국에 투자한 우리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요청함.

□ 또한 주 장관은 **러우친젠(婁勤儉) 섬서성 당서기, 후허핑(胡和平) 섬서성장 면담**을 통해, 한국과 섬서성의 교역·투자 확대 방안 및 문화, 환경, 인프라, 에너지 등에 있어서의 분야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섬서성 투자 기업의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이에 앞서 주 장관은 시안과 충칭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과 **재중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국내 비즈니스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한중 교역·투자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별첨 : 실크로드 박람회 주 장관 기조연설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5-13 14:17:35

참고 **실크로드 박람회 개막식 기조연설**

1.인사말씀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와 문화의 도시 이 곳 시안에서
실크로드 박람회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또한 한국을 이번 박람회의
주빈국으로 초청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주최측의 노력과 러우친젠 당서기님, 후허핑 성장님을 비롯한
섬서성 측의 환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실크로드박람회는
45개국에서 10만여 명의 관람객이 참석하면서,
명실 공히 실크로드 국가들의 축제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번 박람회에 참석한 각 국의 기업인들이
이 곳 섬서성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중서부 시장은 물론,
박람회에 참석한 45개국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가지게 된 것은
향후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인구의 75%와 GDP의 60%를 차지하는
유라시아 지역은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대륙이며,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세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라시아는
고대 문명의 요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크로드를 통한 교류와 협력으로
인류 문명의 소통과 진보를 이끌어 왔습니다.

실크로드는 아시아 국가들의 공동 역사이며
찬란한 문명의 증거입니다.
나아가서 아시아인의 단결과 협력의 상징이자,
소통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2.실크로드 국가들간 협력 방향

다양한 경제 발전단계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 공존하는 이곳 실크로드 지역은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가는
중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try of Trade,
try and Energy

한국 정부는 역내 국가들과 협력하여 유라시아를
하나의 공동체이자 단일시장이 되는 '하나의 대륙',
서로의 강점을 활용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창조의 대륙',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이 완화되는 '평화의 대륙'으로
만들어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과거의 실크로드를
21세기 동서양의 연결 통로로서 부활시키려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이번 행사에 공동 주빈국으로 참석한
카자흐스탄도 '광명의 길'이라는 신경제정책을 통해
실크로드 주요 거점 지역과 연계를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5-13 14:17:35

하지만,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이 하나로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두 국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 나라의 비전과 계획을 서로 공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프로젝트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공동 추진될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는
실크로드 국가들이 추진해 나가야 할 협력 방향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① 첫째, 실크로드 국가간의 교역 및 투자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이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역내 교역과 투자의 장벽을 낮추고,
공동 번영할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일대일로'의 5대 중점 정책 중
무역창통(貿易暢通)이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모두
1~2년 만에 끝낼 수 있는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국가들이 힘을 합쳐,
보다 긴 호흡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자적 통관·무역시스템 도입,
통관·검역 분야에서의 국제표준 적용,
원스탑 통관시스템 도입 등
단기적으로 성과를 도출 할 수 있는 분야들을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Off-line뿐만 아니라, 급속히 늘고 있는 On-line 교역 확대를 통한
디지털 싱글 마켓의 형성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 교역 품목의 다변화,
서비스 교역 확대방안,
투자 활성화 방안,
산업간 협력 방안 등을
상호호혜적인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② 둘째, 실크로드 국가들간의 연결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try of trade
try and Energy

최근 한국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시범사업으로
한국에서 출발하여 중국, 몽골, 러시아를 거쳐
유럽 대륙횡단 철도로 달리는
'유라시아 친선특급*' 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일 동안 지구둘레의 3분의 1에 달하는
14,400km의 대장정을 달리면서,
무려 12개의 시간대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아쉬운 점은 이 거대 대륙은
여전히 교통·물류 인프라가 곳곳에 단절되어 있어서
자유로운 경제 흐름에 장애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인프라 분야 연결성을 제고하여
'통합된 하드웨어'를 가지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5-13 14:17:35

철도, 고속도로, 항공, 해상 운송 등
교통 인프라 건설과 함께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 등 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ICT 기술을 활용해 이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실크로드*'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은 유라시아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교통·물류·통신망 등 인프라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 갈 것입니다.

한국의 유상원조 프로그램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무상원조와
글로벌 인프라 펀드(GIF) 등을 활용해 금융 지원을 하고,
우리의 인프라 개발 경험도 적극 공유해 나갈 것입니다.

③ 셋째, 실크로드 역내 경제통합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Globalization'의 추세 속에
국가간 협력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지역(NAFTA) 등
지역공동체를 넘어서
최근 TPP가 타결되면서 지리적 경계를 넘어선
경제협력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크로드 국가들 사이에서도
APEC, ASEM, ASEAN, 동아시아정상회의 협력(EAS)와 같은
정상 차원의 협력체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FTA 등

역내 자유무역협정의 확대 등을 통해서
정치·경제적 협력을 심화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한중간 경제 특급열차인
한중 FTA가 발효되었으며,
5개월 남짓의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와, 서남아시아 지역을 포함하여
실크로드 국가간 경제통합이 이루어져
함께 공동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번 실크로드 박람회와 같이
유라시아 지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행사가
그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며,
보다 제도적으로 실크로드 경제권
건설에 필요한 협력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3.맺음말씀

내외 귀빈 여러분 !

실크로드 국가들은 문화적 동질성과 함께
각국 고유의 문화적 개성을 두루 지니면서
'같음' 이 주는 공감과
'다름' 이 주는 호기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5-13 14:17:35

여기에 이번 실크로드 박람회를 계기로
실크로드 국가들 간의 소통의 고속도로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소통에 기반하여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서
동질성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새로운 창조와 혁신이 일어나고,
새로운 사업기회도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실크로드 지역 국가들이
경제강국, 문화강국으로 동반 성장하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창 간 씨에.
(非常感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이경호 과장(☎044-203-4030), 송영진 사무관(4031)이나 동북아통상과 조수정 과장(☎044-203-5690), 박근형 사무관(569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